

## 전남 서부권

## AI 지역 축분퇴비 선정 '말썽'

이동 제한 해제 안된 나주 2개업체 포함

함평 N농협 가축 전염병 예방의식 둔감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 및 소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함평 N농협이 최근 AI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분 퇴비를 선정해 말썽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유기질비료 타지역 원료 등 반입금지 조치를 일선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함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자부하는 함평군이 가축전염병 차단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했던 실정이다.

특히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가축분뇨 및 사료 운반 차량 등으로 감염요인으로 드러나 유기질비료나 축분 퇴비를 선정 시에는 신중한 검토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N농협은 최근 ▲나주 2개 업체 ▲무안 1개 업체 등 3개 업체를 선정, 대

동·나산·해보면 등 3개 면에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나주지역은 가축전염병인 AI가 지난 1월 확진 판정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물품과 가축이동 제한조치 등이 내려져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선정 전에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도에서 전남지역 외에서 유입되는 유기질비료 원료 등에 대해 반입금지를 내려 구제역 차단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구매하도록 협조공문을 농협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남의 AI 발생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및 축분퇴비 등에 대한 언급은 도에서 구체적으로 없었고 조기집행으로 인해 농협에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최근 농협에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만약 유기질비료나 퇴비공급으로 인해 우리 군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 “조합 이익 장학금 환원”

신안산림조합, 조합자녀 14명에 700만원

신안군 산림조합(조합장 황권순)이 올해 첫 장학사업을 펼쳐 지역민과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군 산림조합은 섬 지역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교육열정에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환원사업 일환으로 조합원 자녀 중 장학생 14명(고등학생 8명·대학생 6명)을 선발, 장학금 700만원을 지급했다. 군 산림조합은 지난 18일 조합 정기총회에 조

음해 2010년도 이의여여금 1억 6300만원으로 이용고배당, 출자금 배당과 장학금을 지급했다.

목포시와 신안군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신안군 산림조합은 지난 2010년 말 기준 전년대비 165%의 자산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으나, 도서지역 특수여건상 3300여 조합원의 결속된 사업 참여와 이 용도가 낮아 앞으로 경영활성화 대책에 전력 투구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관내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은 물론 공공시설에 음주·

## 창포 체험 마을 등 전북 13곳

## ‘100대 스타농장’에

유기농 포도조합·제일농장 등 전북지역 13개 농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스타농장’에 선정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100대 스타농장’을 선정한 결과 친환경과 우수농산물 이력관리(GAP) 인증부문에서 각각 7개, 6개가 뽑혔다.

이번 선정된 농장은 유기농 포도조합(신태인), 창포체험마을(안주), 반기미 노는 세상(무주), 천년초 마을(의산), 여곡 친환경작물반(고창), 가나안 영농조합(군산), 오월농장(고창), 자우(의산), 제희RPC 십자뜰작목반(군산), 아그리테크(부안), 신농업농조합법인(장수), 제일농장(정읍) 등이다. 이들 농장은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토마토와 복분자, 풋창포, 천년초, 파프리카, 사과, 블루베리, 살 등의 농작물을 특화시켜 도시민의 주말여행 체험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를 농장에 현장체험장 운영비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인터넷 커뮤니티(starfarm.naqg.go.kr)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스타 농장(Farm)’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선정한 친환경 농업과 GAP농업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농장이다.

정읍시 신태인은 백산리 전단 마을 주민들이 지난 1995년 결성한 ‘신태인 유기농 포도영농조합’은 농약·화학비료 대신 완숙퇴비와 깻묵, 쌀거, 조개껍데기 가루 등 유기질 비료를 이용한 농법을 적용해 2001년 과수 부문에서 최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바 있다.

의산시 성당면에 자리한 ‘천년초 마을’은 토종 선인장인 ‘천년초’를 재배해 유명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칼슘과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등 다량 함유된 성분을 활용해 음료로 개발했다.

군산시 회현면 ‘가나안 영농조합법인’은 흥미·녹미·찰현미·흑미·황미 등 가능성 오색미를 재배·판매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농장에 현장체험장 운영비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인터넷 커뮤니티(starfarm.naqg.go.kr)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스타 농장(Farm)’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선정한 친환경 농업과 GAP농업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농장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lt;원주 창포 체험 마을&gt;

&lt;의산 천년초 마을&gt;

## 남원 파프리카 국비 45억 지원

## 국가 공모사업 선정…市, 시설 현대화 투자

남원시의 대표적 수출 농산물인 고랭지 파프리카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시설원에 품질개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올해 FTA 시설원에 품질개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4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자리기후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명품 파프리카 생산 메카로 육성할 방침이다.

남원파프리카는 2001년 첫 재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생산시설 현대화에 52억원을 투자해 연간 1700여t을 생산, 55억원의 주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과 대만 등으로 수출해 30억원의 외화를 획득한 혁신모델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파프리카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연합작목반 구성과 2020년까지 50ha 규모의 수출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연간 100t 이상의 소득기반을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선기자 bs8787@

적인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간선도로나 공동구, 폐기물 처리장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경제청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정부와 협의해 전액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새만금 산단에 기반시설 구축

## 4600억 투입…간선도로·폐기물 처리장 등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간선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개발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전력과 함께 2012년까지 송전탑 92기를 포함한 송전선로(345kv) 90km를 구축해 산업단지에 안정

공동구(6km) ▲폐수 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함께 2012년까지 송전탑 92기를 포함한 송전선로(345kv) 90km를 구축해 산업단지에 안정

로 직접 찾아가 수리해 주는 농기계 고장신고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2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해 전액 무상으로 수리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ee@



## “완도 청정 미역이요~”

완도군 완도읍 완도농공단지에 위치한 미역공장에서 올 1년동안 사용할 염장 미역을 삶고 있다. 청정비단에서 생산되는 완도미역은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과 어린이 성장발달, 여성들의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완도군 제공>

## 목포시 불법 노점상과 전쟁 선포

## 3월부터 道·무안군 합동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도

목포시가 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와 함께 남악신도시 옥암 택지개발지구의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고무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민간 위탁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사업대상은 그동안 상시 민원 발생 지역인 평화광장을 비롯해 대반동과 북항동 일대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는 인천 계양구, 수원 장안구, 고양시 일산 서구 등이 불법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응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전남도, 무안군과 합동으로 오는 3월부터 남악신도시 옥암 택지개발지구의 옥외광고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남악신도시내 옥암 택지개발지구(259만8000m<sup>2</sup>)는 세로형 간판·공연간판·옥상간판·전단·벽보·애드벌룬·선전탑·아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시는 광고물 정비에 앞서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602명에게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가이드라인을 발송했으며, 이후 옥외광고물 정비대상 점포주 43곳에 자진정비 계고를 한바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 무안 ‘2011 퇴임교원 간담회’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석원)은 최근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8일자로 퇴임하는 관내 교원 12명과 함께하는 ‘퇴임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원청은 장년퇴임 교원 7명과 명예퇴임 교원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들에게 기념품과 꽃다발 등을 전달했다.

퇴임교원을 대표해 삼향초 최승균 교장은 “비록 교육현장을 떠나게 돼 아쉬움은 크지만 그동안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에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석원 교육장은 “남은 40여 년도 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전 북



## “올해도 대풍 기원합니다”

배 높이의 돌기둥에 동이줄을 묶고 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창 오거리 당산제보존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7일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 광장에서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어른기 두

<고창군 제공>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생산시설 현대화에 52억원을 투자해 연간 1700여t을 생산, 55억원의 주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과 대만 등으로 수출해 30억원의 외화를 획득한 혁신모델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파프리카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연합작목반 구성과 2020년까지 50ha 규모의 수출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연간 100t 이상의 소득기반을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선기자 bs8787@

## 전주시 덕진공원 등 ‘담장없애기 사업’

전주시는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6월 완공목표로 덕진공원 등 3개소의 담장을 철거하는 ‘담장없애기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대상지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웅철기자 k0765@

## 정읍 전국 핸드볼 팀 전지훈련지 각광

세계적 핸드볼 스타 임오경을 배출하는 등 핸드볼의 성지인 정읍시가 전국 각지 핸드볼 팀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익산 이리중, 인천 비즈니스고 등 3개팀 60여 명이 상평동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

서 전지훈련을 갖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국 허리통 팀의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후에도 정읍시 핸드볼협회와 함께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훈련팀은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익산 이리중, 인천 비즈니스고 등 3개팀 60여 명이 상평동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2500대 등을 보급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소방서 독거노인 등에 소방시설 보급

그룹홈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서는 지난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 4개소 ▲독거노인 그룹홈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5개소 ▲단독경보형 감지기 2500대 등을 보급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 순창농기센터, 농